

국내에서 만나보는 10종류의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



카발란 솔리스트 웨리

위스키 증류소의 개성과 색깔을 제대로 담고 있는 싱글몰트 위스키가 흡술, 혼술 문화의 핵심 주류로 부상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K-주류 문화를 선도하는 (주)골든블루가 수입·유통하고 있는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도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조금씩 판매량을 높여가고 있다.

골든블루는 2017년부터 '카발란'을 국내에 수입·유통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싱글몰트 위스키 마니아들의 호응과 관심을 받아 판매 제품과 채널을 꾸준히 늘려왔다. 현재 국내 주요 업장과 가정용 판매 채널에는 '카발란 클래식'과 '카발란 디스틸러리 셀렉트', '카발란 울로로쏘 웨리 오크', '카발란 솔리스트 웨리', '카발란 솔리스트 포트' 5종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위스키는 면세 시장에서도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골든블루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카발란'을 만날 수 있도록 올해 면세 시장에 진출해 유통 채널을 넓혔다. 올해 2월에는 인천공항 면세점, 5월에는 제주 중문 면세점 입점에 성공하고 면세용 제품을 추가로 들여와, 면세 시장에서 '카발란'의 판매량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면세점에서는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5종 중 '웨리'와 '포트', 면세용으로 들여온 'ex-버번'과 '비노 바리끄', '피노', '모스카텔'로 구성된 '카발란 솔리스트' 6종과 '카발란 클래식', '카발란 콘서트마스터 포트 캐스크 피니시'를 만날 수 있다.

면세 시장까지 유통망을 확대한 골든블루는 혼술족, 흡술족들이 더욱 간편하게 '카발란'을 즐길 수 있도록 올 7월에 '카발란 디스틸러리 셀렉트'의 200ml 소용량 제품을 선보여 국내 최대 유통사인 이마트에서 단독 판매하고 있다. 올해 국내 주류 시장의 핵심 트렌드인 소용량 트렌드에 발맞추고 위스키의 혼술, 흡술 문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소용량 주류는 가정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휴대가 간편해서 연말 파티, 캠핑 등 다양한 상황에서 분위기를 내기에 제격이다.

최근에는 싱글몰트 위스키의 독특한 브랜드 마케팅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카발란'의 역사와 제품 특징 등을 소개해서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또 '카발란'을 만나는 순간, 더 행복한 기억을 만들 수 있도록 주요 업장과 특별 프로모션도 계획 중이다.

김관태 마케팅본부장은 "카발란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분들은 부담 없이 200ml 소용량 제품을 구매해 시음하시면 바로 카발란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며 "카발란 위스키의 독특하면서도 차별화된 맛과 향을 제대로 즐기면서, 위스키에 대한 부담감을 없앨 수 있는 캠페인을 열어 20~30대와 여성 등 새로운 위스키 소비자층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①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